

## 노동시장통합과 결혼 이행\*

윤자영\*\*

본 연구는 노동시장 통합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결혼 시점과 결혼 3년 전의 일자리 유무와 고용형태를 가지고 일자리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초혼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두 집단을 코호트별로 나누어,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변동 과정에서 노동시장통합이 결혼에 미친 차별적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여 2008년도 기준으로 18세 이상인 성인 남녀의 결혼 이행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취업상태와 정규직 근무는 남성의 초혼 형성 해저드는 높이는 반면 여성의 초혼 형성 해저드는 낮추었다. 장기무직, 즉 교육이나 군대 기간을 제외하고 결혼 전 3년 동안 2년 이상 무직 상태에 있을 때 남녀 모두 결혼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았다. 정규직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결혼 해저드가 높아졌다. 정규직 근속기간이 긴 남성에게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코호트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어 최근의 사회경제적 불확실성과 노동시장 불안정화의 부정적 영향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시사했다.

**핵심단어: 노동시장통합, 결혼 이행, 청년실업, 정규직**

### I.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혼건수 감소와 초혼연령의 상승은 출산율을 저하를 초래함으로써 고령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30대 미혼율은 2010년 29.2%로 2005년에 비해 7.6%p 증가했다(통계청, 2011). 불안정 고용, 자녀 양육비 부담 증가, 알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 등이 만혼과 결혼 기피의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청년층이 결혼을 통해서 출생 가족에서 벗어나 자신의 독자적 가족을 형성하기 어려운 조건이 되고 있다. 결혼은 삶의 동반자를 통한 심리적 안

\* 본 논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외 저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우리나라의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실태>의 4장 '결혼과 출산을 통한 가족 형성'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jayoungy@gmail.com

정과 질병과 가난이라는 여러 형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하는 지배적인 제도이다. 그러한 결혼에 대한 개인적인 결정은 사회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혼과 결혼 지연에 대한 우려는 지나친 것이 아니다.

결혼을 둘러싸고 개인적인 차원의 가치관 변화와 결혼을 위한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가 일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우선 가치관 차원에서 결혼을 반드시 거쳐야 할 성인기 사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결혼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책임과 구속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심리·경제적 부담과 억압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결혼을 무조건적으로 성인의 정체성의 구성 요소로 규정하는 사회적 규범과 개인의 가치관이 약해짐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 테두리 안에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욕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을 갖춘 개인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삶의 형태를 선택할 가능성은 높다. 결혼은 개인이 당연하게 경험하는 삶의 자연스러운 경로라기보다는, 더 나은 삶의 조건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 보장될 때에만 선택하는 것이 되었다. 결혼은 장기적인 계약관계를 기반으로 제도적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어느 정도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선택하고 있다. 결혼을 '선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본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의 급격한 미혼비율의 상승은 결혼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결혼을 영원히 기피하기 보다는 결혼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최적화하기 위한 탐색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거나 결혼으로 인한 이득이 미혼으로 남아 있는 것보다 크지 않다고 여기는 개인이 많아졌음을 반영하는 듯하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노동시장에서의 기회가 여성에게 더 많이 제공될수록 결혼 대신 직업에 대한 열망이 높아져 결혼을 늦추거나 안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남성이 결혼의 자격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때, 청년 실업자를 양산하는 구조적인 노동시장의 문제는 남성이 결혼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남녀 모두에게 경제적 자원은 결혼을 통해 독자적 가족을 꾸리는 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결혼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수적이지만 청년층 앞에 놓여 있는 노동시장 전망의 불확실성은 청년들이 친밀한 애정관계를 거쳐 결혼으로 이를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다. 특히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청년 실업은 부양자로서 '준비된' 남성됨을 좁히고

있다.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관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지배적인 경제 체제에서 남성의 취업 지연과 불안정 고용은 남성을 '결혼할만한 배우자'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에서도 남성들이 '결혼할만한 조건(marriageable)'이 충족되지 못하는 것이 남성의 결혼을 지연시키고, 따라서 여성의 결혼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윌슨(1987)은 1970년대 이후 흑인의 급속한 혼인을 감소가 흑인 남성들의 일자리 안정성에 원인이 있음을 밝혔다. 오펜하이머 외.(1997)는 미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남성들이 자신의 경력이 안정된 계도에 오를 때까지 결혼을 미룸으로써 결혼시기가 늦어진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남성의 일자리 안정성과 결혼과의 관계에 주목하는데, 결혼을 위한 조건으로 생계부양자인 남성의 소득 활동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 즉 취업은 결혼 이행에 다차원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취업은 여성에게 결혼의 기회비용으로 작용하여 결혼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성별분업 이데올로기가 약화되면서 경제적 능력을 갖춘 여성이 결혼 상대자로 각광받고 있기도 하다. 최근 연구들은 교육 수준, 결혼의 기회비용 상승, 취업 여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특히 외환위기를 전후한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가 결혼에 미친 영향 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취업 및 노동시장 경력과 결혼의 연관관계를 밝히려고 시도하였으나, 주로 결혼 시점이나 직전 취업 여부에 한정짓고 있다. 개인의 노동시장 통합(labor market integration)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청년층 일자리의 불안정화와 장기적 안정성 측면에서 조명하고자 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참여 이력에 초점을 맞춰 노동시장 통합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두 개의 코호트별로 나누어, 노동시장 통합이 결혼에 미친 영향이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변동을 거치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결혼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가족적·노동시장참여 배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여 2008년도 기준으로 18세 이상인 성인 남녀의 결혼 이행을 분석했다.

## II. 기존 연구

국내 연구들은 크게 가치관의 변화와 교육 수준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거나, 결혼의 기회비용 상승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 결혼을 위한 경제적 준비 상태인 취업 여부와 결혼의 관계, 그리고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특히 외환위기를 전후한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가 미혼율 증가에 미친 영향에 관심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환 위기를 전후로 한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가 결혼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우선 교육은 결혼 시기를 늦춘다는 것을 여러 연구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 가운데 우혜봉(2009)은 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교육이 초혼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남녀 모두 최근 출생한 코호트에 속할수록 미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이러한 격차는 남성의 경우에 더욱 뚜렷하게 관측되었다. 또한 1970년 이전에 출생한 코호트의 경우 대체로 남녀 모두 교육수준이 높은 개인들은 초기에는 결혼을 하는 비율이 낮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결혼을 함으로써 교육으로 인해 연기한 결혼을 따라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70년 이후에 출생한 코호트 가운데 고학력 여성에게서는 이러한 따라잡기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즉 최근 출생한 고학력 여성은 교육으로 인해 결혼을 미룬 경우, 결혼을 지연하거나 단념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이다.

기회비용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둔 조병구 외(2007)는 결혼은 개인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이라는 서치모형에 입각해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서치모형에 의하면 결혼 주체는 배우자 후보군에서 배우자를 확률적 추출 과정을 통해 선택하는데, 배우자의 임금이 높을수록 결혼을 통해 경제주체의 효용이 증가할 것이다. 결혼 결정은 결혼이 주는 효용이 자신의 유보임금보다 높을 때 이루어진다. 결혼 이행을 1993~2005년도까지 각 연도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22~34세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남성의 실질임금을 상승은 여성의 결혼확률을 크게 높이는 반면 여성의 실질임금을 상승은 여성의 결혼확률을 현저하게 감소시켰다. 결혼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 교육비와 전세비용지수의 효과는 결혼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993년에서 2005년에 걸쳐 일어난 결혼 확률 감소가 결혼할만한 남성의 수가 감소해서라기보다는 상당 부분 여성의 교육수준 증가 및 임금을 상승 등

결혼으로 인한 기회비용에 직결되는 요인과 교육비와 같이 자녀비용에 관련된 요인에 의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있다.

독립된 생계를 꾸리기 위한 경제적 자원, 즉 취업과 결혼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은 결혼을 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조건의 마련이 과거보다 더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안태현(2010)은 경제사회적 상황, 특히 고용상태가 남성의 결혼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남성의 미취업률 증가가 최근 20~30대 남성 미혼율 증가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며,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분석을 통해 남성의 미취업이 결혼 진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크고, 미취업의 가장 큰 부분은 이들이 재학 중인 데 기인하는 것임을 밝혔다. 상용직인지 임시·일용직인지 여부는 결혼 진입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실직을 경험한 미혼 남성은 실직 1년 전후로 결혼진입확률이 5.4%p 감소함을 밝혀냈다.

이상호·이상현(2010) 역시 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미혼인 사람이 다음 연도에 결혼을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프로빗모형을 추정한 결과, 남성은 비정규직과 실업자가 정규직에 비해 결혼확률이 낮았고, 여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결혼할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가운데 실업자는 정규직보다 결혼확률이 낮았다. 정규직에 비해 소득이 없는 자는 남성의 경우 결혼 확률이 낮았지만 여성의 경우 높았다. 고용불안정성 및 주거비용 증대는 결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박가열·천영민(2011)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를 이용하여 고용의 질, 정규직/비정규 상태와 사업체 규모가 결혼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2005년 대졸자 가운데 1차년도 조사 당시에 미혼 임금 근로자였던 청년이 이후에 결혼했는지 여부를 분석했기 때문에 실직 상태까지 포함하는 노동시장 통합의 정도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연구 결과 정규직과 대기업 종사자 여부는 결혼 확률을 높였으나, 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여성에게 노동시장에 통합되어 있는지 여부가 결혼 확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남성 생계부양자 모형이 지배적이었던 우리나라에서도 경험적으로 밝혀진바 있다. 은기수(1995)는 1983년 전국인구이동조사 자료 중 개인사자료를 사용하여 한국인 남녀가 결혼으로 이행해 나갈 때 결혼에 관한 규범 중 연령규범과 순서규범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보고자 했다. 연령규범은 결혼적령기라는 개념으로 표현되고 순서규범은 결혼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생애 과정을 밟아야 하고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상정했다. 그는 남자의 경우 결혼적령기가 지나도 결혼하기 전에 안정된 직업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의 순서규범이 큰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결혼 직전 경제활동상태에 관계없이 연령규범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여자는 결혼 직전에 실업상태로 있거나 가사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도 취업 상태에 있는 경우에 비해 결혼으로 진입하는데 있어 불리함을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결혼으로 이행이 어려움이 있었다. 이 결과는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에 따른 경제적 활동 상태가 과거에는 결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은기수(1999)는 후속 연구에서 같은 자료를 사용하여 결혼 전의 생애과정이 결혼시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산시간 사건사분석을 통해 밝히고 있다. 생애과정은 교육, 직장, 군대, 결혼, 출산 등과 같은 주요한 생애사건의 연결로 표시된 생애사건연쇄이다. 분석 결과, 남자의 경우, 상당히 먼 과거의 생애과정도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가까운 과거의 생애과정만이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의 경우 취업 기간에 따라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은기수(1995, 1999)의 연구는 20여년 전의 자료에 기반하여 결혼 전 생애과정, 즉 취업과 결혼 이행에 관하여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 하에서 개인의 노동시장참여 이력이 결혼 이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

반면 유홍준·현성민(2010)은 결혼연기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1995년, 2000년, 2005년 세 시점에서 『인구주택총조사』 2% 원자료를 이용해 20~44세의 남녀를 분석했다. 세 시점에서의 분석결과 남성의 경우 교육수준, 취업여부와 같은 경제적 자원이 결혼 여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여성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높은 교육수준과 취업이 결혼 여부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IMF 경제위기 후 남성에게서 경제적 자원의 질적인 측면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또한 경제위기 이후 초등학교 이하의 저학력층의 경우 남녀 모두 결혼으로 이행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제적 자원이 많은 남성일수록 결혼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경제적 자원은 결혼 가능성을 낮아지게 한다는 전통적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동일한 시점에서 취업 여부와 결혼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어 인과 관계라고 확정짓기 어렵다. 즉 취업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한 건지, 아니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었는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동일한 시점에서 취업 여부만을

분석하고 있어 노동시장의 통합 정도, 즉 얼마나 직장을 오래 다녔는가가 결혼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 통합의 질적인 측면인 안정적인 일자리에 일하고 있는지 여부 또한 결혼 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경화(2004)는 대졸 미혼 여성들의 노동시장 경험이 어떻게 결혼가치관과 결혼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면접기법을 사용한 질적 연구를 수행했다. 대구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비정규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미혼 여성 23명을 인터뷰했다. 조사대상 여성들은 결혼에 대해서 선택적이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소극적 입장(7명)과 결혼을 반드시 하려고 생각하는 적극적인 입장(16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결혼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여성들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결혼에 대해 무관심했다. 적극적으로 주변부 노동시장을 벗어나기 위해 시험을 준비하는 여성들은 결혼을 연기하고 있었고, 비정규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수용하며 적응하고 있는 여성들은 결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이들은 자신들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성 등으로 오히려 결혼 생활에 기대를 걸고 결혼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 결혼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비정규노동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가진다. 결혼과 동시에 일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고, 일을 계속하더라도 직장과 집안일 사이 갈등이 존재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이들은 계약직이나 시간제 비정규노동을 결혼생활과 병행이 가능한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박경숙 외(2005)는 1990년대 후반 남녀의 결혼의 가치와 기회구조가 1997년 경제위기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하여 결혼 지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1998년에서 2002년 기간의 한국노동패널조사이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젊은 층의 취업조건이 악화되면서 남성에게 결혼 직전 취업여부와 높은 교육수준은 중요한 결혼의 자원이 되었다. 여성에서는 1998년 이후 결혼코호트에서는 여성의 결혼시기에 대한 교육의 효과는 약해지는 대신 취업상태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취업 여성일수록 결혼시기가 유의미하게 지연되고 있었다. 그러나 취업 여부가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코호트별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1997년 이후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취업 및 노동시장 경력과 결혼의 연관관계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주로 결혼 시점이나 직전 취업 여부에 한정짓고 있어, 청년층 일자리의 불안정화와 장기적 안정성이 결혼 여부 및 시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참여 이력이 결혼 이행에 미치

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코호트별로 나타난 차별적인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노동시장경력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의 경우 단순히 초혼의 발생 '여부' 뿐만 아니라 초혼이 발생한 '시점'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생존분석 모형을 추정한다. 특히 결혼 이행에서 초혼 해지드가 연령의 경과와 함께 비비례적으로(nonproportional) 변화도록 함으로써 노동시장경력이 단순히 결혼의 연기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연령의 경과에 따라 기준선 해지드 자체를 변화시키는지 살펴본다.

또한 노동시장경력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이 코호트별로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가를 분석한다. 사회변동을 동일한 시기동안 특정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인 '코호트의 대체 또는 승계'로 파악하는 이론(Alwin and McCammon, 2003)에서는 특정 코호트에 속한 사람들은 사회적 역사적 사건들을 함께 경험하며 특정 시기에 그 사회가 제공하는 기회와 제약을 공유한다고 본다. 또한 같은 코호트에 속한 사람은 역사적 사회적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코호트에 독특한 가치체계를 형성하게 만들 수 있고 이상과 같은 과정이 반복되면서 사회는 점차 변화해 간다. 따라서 코호트별로 비슷한 사회경제적 기회와 제약이 어떻게 결혼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은 노동시장구조 변화와 가족 형성이라는 거대한 사회변동의 방향과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출생 코호트를 남성의 경우 1970년 이후에 출생한 코호트와 그 이전에 출생한 코호트, 여성의 경우 1973년 이후에 출생한 코호트와 그 이전에 출생한 코호트로 구분했다. 이러한 구분은 1970년 이후에 출생한 코호트의 상당수가 1997년 경제 위기 이후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였다는 점에서 결혼 패턴과 관련하여 그 이전 출생 코호트들과는 일정 수준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과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군대의무가 없어 더 빨리 노동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모형은 이산형 생존분석(discrete-time survival analysis)을 사용하며 개인-기간(person-period)자료를 구축하여 추정했다. 기간(duration)의 측정은 개인이 18세에 도달한 시점부터 시작하여 측정의 종료는 18세 이후에 초혼을 한 사람



은 초혼이 이루어진 연령으로, 관측이 종료될 때까지 초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측된 시점에서의 연령 혹은 초혼 행위가 완료되는 연령으로 상정한 41세 중 선행하는 연령으로 관측한다. 자료를 개인-기간(person-period)으로 구축한 후 이항변수의 분석에 사용하는 로그-로그 모형을 적용하였다.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했다. 분석 대상자들은 가장 최근 조사 시점인 2008년 기준으로 만 연령이 18세 이상인 개인들로 여성 4,588명과 남성 4,470명이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결혼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들로는 교육수준, 출생 코호트, 유년기 성장지, 종교, 부모의 교육수준, 현재 재학 상태이거나 군대에 있음, 노동시장 이력을 포함한다. 유년기 성장지와 종교 유무는 결혼과 관련하여 개인들의 가치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유년기 성장지는 더미 변수로 광역시 거주자와 비광역시 거주자를 구분했다. 광역시에서 성장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결혼에 대한 근대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 결혼 해저드가 유의하게 낮을 것이다. 종교가 있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결혼을 보다 정상적인 삶의 경로로 인식해 그로부터 이탈하지 않고자 하는 성향이 강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은 범주형 변수로 고졸 미만(준거범주), 고졸, 전문대 이상의 범주로 구분했다. 부모의 교육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을 우선으로 하며, 아버지의 정보가 결측되었을 경우 어머니의 정보를 대체 사용했다.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결혼에 대한 근대적 가치관을 전승하거나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과 직업적 성취에 대한 기대를 가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혼을 강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남성에게서보다 여성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표 1>은 이러한 변수들의 기술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표본의 남녀 현재 연령은 약 41세로 비슷하나 결혼 연령은 여성 24.7세, 남성 27.9세이다. 대졸자 비중은 남성이 높고, 최근 코호트 비중은 남성이 더 높다. 여성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비중이 더 높았으며 광역시에서 성장한 비중과 부모의 학력 수준은 남녀가 비슷했다.

본 연구는 일자리 안정성과 지속성을 노동시장 통합의 정도와 지표로 삼는다. 일자리 안정성과 지속성이 결혼 시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4가지 변수를 다음과 같이 구축했다.

(1) 결혼 시점에서의 현재 취업상태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 현재 취업 상태에 있음은 남성에게는 결혼을 위한 준비된 조건을 의미하므로 결혼 해저드를 높일 것이다. 반대로 여성의 경우 비취업 상태가 직업적 성취에 대한 낮은 기대나 포기를 의미해 결혼 해저드를 높일 것이다.

&lt;표 1&gt; 주요 변수 기술통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여성	결혼연령	3,599	24.7	3.4	18	41
	연령	4,588	40.7	12.7	18	65
	대졸	4,588	0.36	0.48	0	1
	코호트 (1973년 이후 출생)	4,588	0.39	0.49	0	1
	종교	4,588	0.56	0.50	0	1
	성장지(광역시)	4,588	0.39	0.49	0	1
	부 고졸	4,588	0.26	0.44	0	1
	부 대졸	4,588	0.12	0.33	0	1
남성	결혼연령	3,176	27.9	3.4	18	41
	연령	4,470	40.9	12.5	18	65
	대졸	4,470	0.44	0.50	0	1
	코호트 (1970년 이후 출생)	4,470	0.45	0.50	0	1
	종교	4,470	0.46	0.50	0	1
	성장지(광역시)	4,470	0.41	0.49	0	1
	부 고졸	4,470	0.25	0.43	0	1
	부 대졸	4,470	0.12	0.32	0	1

(2) 결혼 시점에서의 현재 일자리 안정성을 나타내는 더미 변수(1: 정규직<sup>1)</sup>, 0: 그 외): 남성에게 정규직 여부는 결혼 해저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데, 일자리의 안정성보다는 취업 상태 여부가 더 중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반면 여성에게 정규직 일자리는 결혼의 기회비용을 높여 결혼 해저드를 낮출 것이라 예측할 수도 있다.

(3) 지난 3년 동안 무직 기간이 1년 이상 더미: 장기 무직은 남녀 모두의 결혼 해저드를 낮출 것이라 예상된다. 여성에게 장기무직은 경력을 포기·단념함으로써 결혼 해저드를 높일 가능성도 있는 반면, 남성과 마찬가지로 결혼 준비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하여 결혼 해저드를 낮출 가능성도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장기무직의 부정적 효과는 최근 코호트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4) 지난 3년 동안 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이 2년 이상 더미: 정규직 근속기간은 남성의 결혼 해저드를 높일 것이다. 여성의 경우 정규직 근속 기간이 길다는 것은 안정된 정규직 커리어를 쌓기 위해 그만큼 경력에 몰입하고 있음을 의

1) 자료에서 정규직 변수가 결측(missing)인 경우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인 경우 정규직이라고 가정하였다.

미하기 때문에 결혼 해저드를 낮출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분석 모형은 교육이 초혼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우해봉(2009)이 사용한 모형과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도 연령의 경과에 따라 기준선 해저드가 변할 수 있도록 보여 로그-로그(complementary log-log) 기준선 해저드의 형태를 사용했다. 기준선 해저드를 통하여 특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서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해당 연령에서 결혼을 할 조건부 확률의 연령별 패턴에 관한 정보를 도출한다. 우해봉(2009)은 기준선 해저드를 연령의 제곱항을 넣음으로써 함수적 형태로 정의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연령 터미를 사용했다. 연령을 18~23세, 24~29세, 30~35세, 36~41세의 4개 구간으로 나누었다.

모형(1)은 기준선 해저드인 연령터미(24~29 준거)와 더불어 초혼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인 재학(군대) 상태, 대학이상졸업(터미), 코호트 터미(70년대 이후 출생), 종교 유무, 유년기 성장지(광역시), 부 고졸 여부, 부 대졸 여부 변수들을 기준선 해저드에 넣었다. 이 외에 현재 시점에서 관측한 취업상태와 정규직 여부 변수를 넣었다.

모형(2)는 현재 노동시장 참여뿐만 아니라 결혼 시기 이전에 노동시장 참여이력이 결혼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보고 결혼 시기 이전 과거 3년 동안 1년 이상 장기무직상태에 있었는지 터미 변수와 과거 3년 동안 정규직으로 근무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터미 변수의 효과를 검토했다.

모형(3)은 연령터미와 노동시장통합 변수들의 교호작용의 효과를 검토한다. 이 모형은 노동시장통합과 결혼 이행의 관계가 연령의 경과에 따라 비비례적으로 변화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즉 노동시장통합 변수가 결혼 이행에 미치는 효과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달라지는지, 달라진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토한다.

모형(4)는 연령과 출생코호트의 상호작용을 검토한다.

모형(5)는 노동시장통합과 출생코호트의 상호작용을 검토하는 모형이다. 노동시장참여이력의 영향이 코호트별로 달라지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둘 간의 상호작용항을 넣었다. 이 모형을 통해 특히 외환위기 전후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구조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의 영향이 결혼 이행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간접적으로 검토한다.

마지막 모형(6)은 노동시장통합, 출생 코호트, 기준선 해저드 사이의 동시적 상호작용을 검토하는 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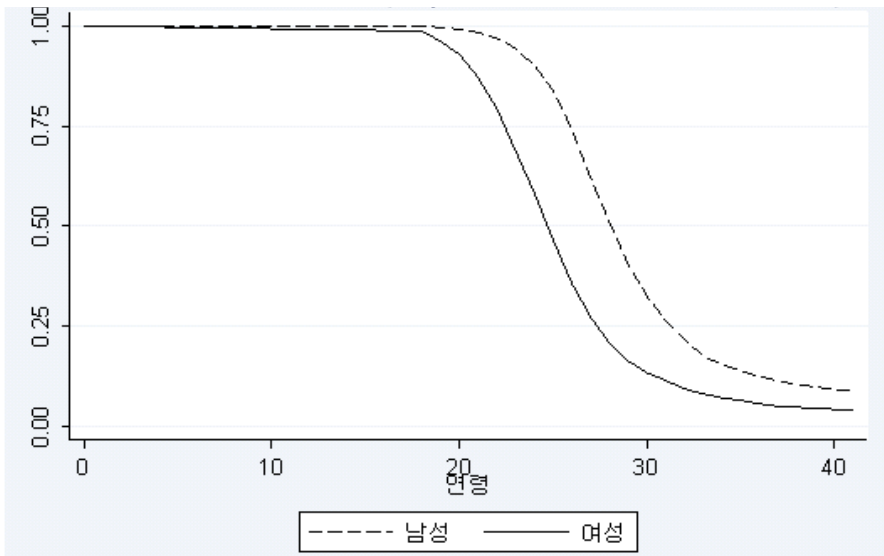
#### IV. 연구 결과

회귀분석 결과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생존함수분석에서 도출된 연령에 따른 미혼 탈출 확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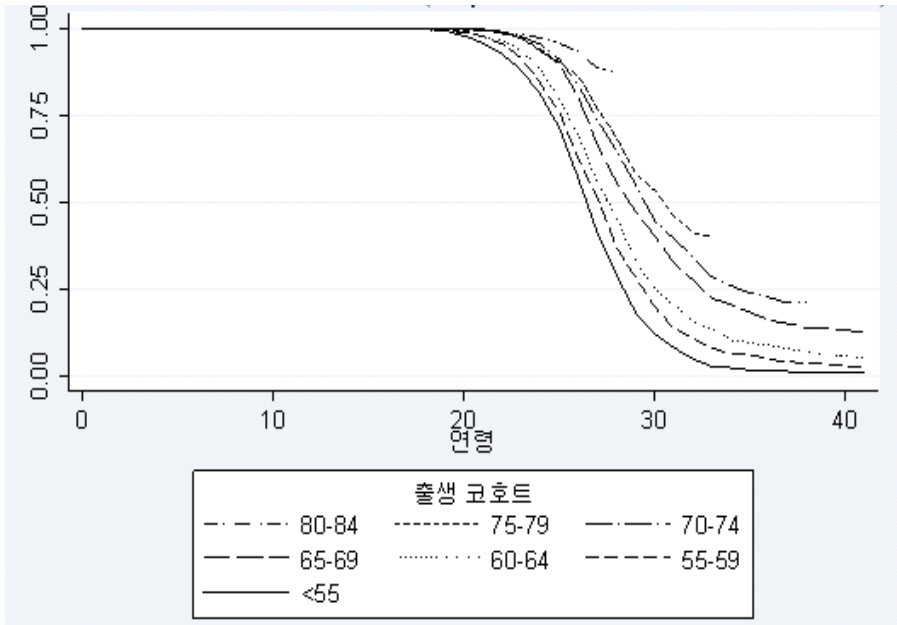
<그림 1>는 특정 연령에서 남녀 각각이 미혼으로 남아 있을 비중을 보여준다. 세로축에 있는 0.50이 전체 남성 인구 중 50%라고 이해하면 그 50%에 대응되는 가로축의 연령은 대략 29세인데, 대략 29세에서 50%의 남성이 미혼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여성 가운데 50%가 대략 25세에 미혼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프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 바로 남녀가 미혼 상태를 탈피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남자는 20대 중후반, 여자는 20대 초반에 초혼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성보다 여성의 곡선이 20대 이후부터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남성보다 여성이 전연령대에 걸쳐 고르게 결혼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2>와 <그림 3>은 남녀 각각 출생 코호트별로 나누어 결혼 이행 생존 함수를 보여주고 있다. 코호트는 1954년 이전 생(50세 이전), 1955~1959년생

<그림 1> 결혼 이행 생존 함수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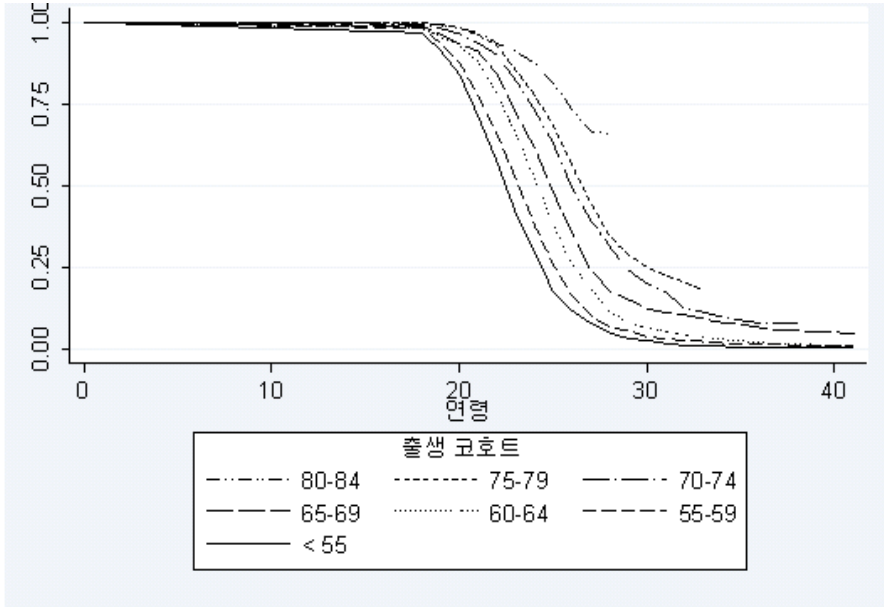
<그림 2> 남성 결혼 이행 생존 함수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s)



(51~55세), 1960~1964년생(46~50세), 1965~1969년생(41~45세), 1970~1974년생(36~40세), 1975~1979년생(31~35세), 1980~1984년생(25~30세)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는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25세 미만 집단의 결혼 비중이 낮아 가시적으로 유의미한 패턴이 드러나지 않아 제외했다. 앞의 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면, 각 코호트별로 75%의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될 연령이 최근 코호트, 즉 최근에 출생한 자일수록 늦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림 2>가 제시하듯이, 1965년 이후와 이전 출생자 남성 그래프 간의 간격이 벌어져 있어 이 두 집단 간 초혼 시기에 급격한 조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65년 이전 출생자들과 그 이후 출생자들의 생존 감소 행태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전자가 20대 후반에 미혼 탈출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후자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에 걸쳐 비교적 완만하게 미혼 탈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특정 연령에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결혼적령기 개념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이 제시하듯이, 여성의 경우도 주목할 만한 사실은 1970년 이후와 이전 출생자 간에 결혼 시기의 지연이 급격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남성

<그림 3> 여성 결혼 이행 생존 함수 (Kaplan-Meier survival estimates)



이 여성보다 군대와 결혼 연령차로 인해 결혼적령기가 늦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끼친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들의 대학졸업 이후 사회진출 시기가 1997년 외환위기와 맞물려 있다고 가정했을 때 외환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지각 변동이 결혼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남성의 경우 30대 후반에서 40세에 이르기까지 1965년 이후와 이전 출생자의 미혼 탈출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면, 여성의 경우는 코호트 간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결혼을 지연하고는 있지만 남성보다는 결혼을 하게 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음을 시사한다.

〈표 2〉은 여성의 노동시장이력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모형 (1)의 추정 결과에서 기준선 해저드를 살펴보면, 24~29세 연령에서보다 다른 연령에서 결혼 해저드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이상학력은 해저드를 감소시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을 지연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1973년 이후 출생자도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비해 결혼을 지연할 가능성이 높았다. 종교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결혼을

할 개연성이 높았다. 광역시에서 유년기를 보낸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결혼 해저드가 낮았다. 예측한 바대로 부의 높은 교육수준도 여성의 결혼 해저드를 감소시켰다.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결혼 해저드가 낮으나 정규직 여부는 결혼 해저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안정적 일자리는 여성에게 결혼의 기회비용을 높여 결혼 해저드를 낮출 것이라 예상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재학(군대) 상태를 통제하고 난 후의 결과이다. 여기서 노동시장 참여 상태가 결혼 여부와 같은 시점에서 측정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혼 시기는 반대로 현재 시점의 노동시장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모형 (2)에서는 결혼 시점 이전의 3년 동안의 노동시장이력에 해당하는 장기무직과 정규직 근속 여부의 효과를 검토했다. 장기무직은 여성의 결혼 해저드를 낮추고, 정규직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결혼 해저드가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결혼 이전의 노동시장이력 변수를 추가하자, 일정 연령 시점에서의 취업 상태 변수의 계수가 바뀌었다. 현재 취업 상태는 여전히 결혼 해저드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옴에 반해, 현재 정규직으로 취업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결혼 해저드가 낮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결혼을 지연할 가능성이 높지만 정규직으로서 지속적으로 일한 후 커리어가 궤도로 들어서면 결혼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모형 (3)은 노동시장통합이 연령에 따라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취업여부, 장기무직, 정규직 근속 여부는 24~29세를 기준으로 그보다 나이가 많은 집단과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4~29세에 비해 30~35세의 여성이 현재 정규직으로 있을 때 결혼 해저드가 더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크지는 않았다. 반면 24~29세에 비해 18~23세 집단은 현재 정규직, 장기무직일 경우 결혼 해저드가 더 낮았고 정규직 근속일 경우 결혼 해저드가 더 높았다. 노동시장통합과 연령의 교호작용 변수를 넣었을 때도 현재 취업, 장기무직, 정규직 근속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으나 현재 정규직은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했다.

모형 (4)는 연령과 코호트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토했다. 36~41세와 코호트 상호작용 변수는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모형 추정에서 탈락되었다. 연령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은 출생 코호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24~29세 여성은 18~23세 여성에 비해 최근 출생코호트에 속할수록 결혼 해저드가 낮았으며 30~

&lt;표 2&gt; 이산형 생존모형 분석 결과 I: 여성-노동시장이력과 결혼

	(1)	(2)	(3)	(4)	(5)	(6)
연령더미1 (18-23세)	-1.522*** (0.041)	-1.346*** (0.043)	-1.003*** (0.142)	-1.282*** (0.046)	-1.332*** (0.044)	-0.962*** (0.168)
연령더미3 (30-35세)	-0.443*** (0.087)	-0.464*** (0.088)	-0.124*** (0.254)	-0.594*** (0.104)	-0.466*** (0.088)	-0.332*** (0.274)
연령더미4 (36-41세)	-1.556*** (0.232)	-1.595*** (0.236)	-1.598*** (0.544)	-1.578*** (0.236)	-1.581*** (0.234)	-1.587*** (0.546)
재학상태 더미	-0.280*** (0.042)	-0.198*** (0.043)	-0.164*** (0.043)	-0.190*** (0.042)	-0.197*** (0.043)	-0.149*** (0.043)
대학이상 학력	-0.489*** (0.046)	-0.456*** (0.046)	-0.439*** (0.046)	-0.447*** (0.046)	-0.442*** (0.046)	-0.417*** (0.045)
코호트(73년이후 출생)	-0.888*** (0.062)	-0.918*** (0.063)	-0.912*** (0.060)	-0.834*** (0.071)	-0.996*** (0.165)	-0.893*** (0.197)
종교	0.116*** (0.039)	0.122*** (0.040)	0.118*** (0.039)	0.113*** (0.039)	0.116*** (0.039)	0.105*** (0.039)
광역시 성장	-0.326*** (0.042)	-0.323*** (0.043)	-0.326*** (0.042)	-0.317*** (0.042)	-0.320*** (0.042)	-0.317*** (0.042)
부 고졸	-0.206*** (0.051)	-0.189*** (0.052)	-0.190*** (0.052)	-0.176*** (0.051)	-0.176*** (0.052)	-0.167*** (0.051)
부 대졸	-0.237*** (0.069)	-0.194*** (0.069)	-0.190*** (0.070)	-0.180*** (0.068)	-0.166** (0.069)	-0.155** (0.069)
현재 취업	-0.223*** (0.054)	-0.571*** (0.071)	-0.573*** (0.096)	-0.576*** (0.071)	-0.594*** (0.081)	-0.641*** (0.114)
현재 정규직 더미	0.0179 (0.058)	-0.159** (0.077)	-0.0580 (0.098)	-0.160** (0.077)	-0.253*** (0.092)	-0.0653 (0.121)
장기무직 더미		-0.659*** (0.070)	-0.430*** (0.092)	-0.659*** (0.070)	-0.606*** (0.082)	-0.407*** (0.111)
정규직 근속 더미		0.213*** (0.072)	0.199** (0.089)	0.21*** (0.072)	0.287*** (0.087)	0.251** (0.111)
연령1*현재 취업			0.108 (0.141)			0.176 (0.164)
연령3*현재 취업			-0.392 (0.281)			-0.210 (0.309)
연령4*현재 취업			-0.634 (0.696)			-0.569 (0.698)
연령1*현재 정규직			-0.558*** (0.178)			-0.786*** (0.217)
연령3*현재 정규직			0.557* (0.303)			0.521 (0.379)
연령4*현재 정규직			0.499 (0.660)			0.511 (0.663)
연령1*장기무직			-0.581*** (0.143)			-0.553*** (0.168)

(다음 페이지에 계속)



(표 2 계속)

	(1)	(2)	(3)	(4)	(5)	(6)
연령3*장기무직			-0.313 (0.275)			-0.228 (0.296)
연령4*장기무직			0.771 (0.570)			0.743 (0.573)
연령1*정규직 근속			0.308* (0.176)			0.411* (0.213)
연령3*정규직 근속			-0.464 (0.290)			-0.600 (0.370)
연령4*정규직 근속			-0.344 (0.557)			-0.405 (0.558)
연령1*코호트				-0.485*** (0.106)		-0.590* (0.339)
연령3*코호트				0.510*** (0.189)		0.810 (0.584)
현재취업*코호트					0.249 (0.179)	0.266 (0.215)
정규직*코호트					0.339* (0.176)	0.037 (0.207)
장기무직*코호트					-0.330** (0.161)	-0.150 (0.204)
정규직 근속*코호트					-0.286* (0.157)	-0.214 (0.189)
연령1*현재 취업*코호트						0.153 (0.349)
연령3*현재 취업*코호트						-0.685 (0.665)
연령1*정규직*코호트						1.075*** (0.381)
연령3*정규직*코호트						0.053 (0.650)
연령1*장기무직*코호트						-0.258 (0.344)
연령3*장기무직*코호트						-0.027 (0.664)
연령1*근속*코호트						-0.418 (0.378)
연령3*근속*코호트						0.385 (0.585)
상수	-0.673*** (0.056)	-0.278*** (0.076)	-0.397*** (0.095)	-0.298*** (0.077)	-0.299*** (0.085)	-0.420*** (0.111)
관측치	36,113	36,113	36,113	36,113	36,113	36,113
	4,588명	4,588명	4,588명	4,588명	4,588명	4,588명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35세 여성은 최근 코호트에 속할수록 결혼 해저드가 더 높았다. 즉 24~29세보다 30~35세로 여성의 결혼 해저드가 낮긴 하지만 30대 이상 여성 동연령대의 결혼 해저드는 과거보다 최근 코호트가 더 높다는 것이다.

모형 (5)는 노동시장참여이력의 효과가 코호트별로 달라지는지를 검토하는 모형이었다. 현재 취업상태는 코호트별로 효과가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현재 정규직에 있는 여성은 1973년 이후 출생자가 이전 출생자에 비해 초혼 해저드가 높다. '커리어'를 가진 안정적 일자리를 가진 여성이 결혼 상태에 있을 가능성은 과거보다 더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여성의 안정적인 경제력의 가능성은 과거보다 최근 들어 결혼의 자원이 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장기무직 상태의 효과도 코호트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장기무직 상태가 결혼 해저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최근 코호트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정규직 근속 기간이 초혼 해저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1973년 이전 출생자들보다 1973년 이후 출생자들에게서 감소했다. 즉 여성이 가진 일자리의 안정성과 경력 추구가 초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개연성이 높은 코호트에서 감소했다. 외환위기 이후 정규직 커리어를 쌓고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결혼할 만한 남성을 찾기가 쉽지 않았거나,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사회 규범이 약화된 상황에서 경력에의 장기간 몰입으로 결혼이 지연되기 더욱 쉬워졌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모형 (6)은 이상의 모든 영향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모형이다. 본 연구의 관심은 노동시장통합이 결혼 이행에 미친 효과가 코호트별로 다르게 나타났는지에 있다. 이 모형은 그 효과가 연령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규직의 긍정적 효과가 최근 코호트에서 더 크게 나타났지만 24~29세 여성은 다른 연령층의 여성에 비해 그 효과가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즉 24~29세 여성이 현재 정규직 일자리에 있을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결혼을 연기할 가능성이 과거보다 커졌다는 것이다. 반면 앞에서 정규직 근속의 결혼 이행의 긍정적 영향은 최근 코호트에서 감소했는데, 24~29세보다 연령이 높은 여성의 경우 정규직 근속은 결혼 해저드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이가 들어서 정규직 일자리에 오래 근무했을수록 빨리 결혼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장기무직의 경우도 나이가 들어서 장기무직 상태에 오래 있을 경우 결혼 해저드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혼을 단념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는 노동시장이력이 남성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보자. 우선 <표 3>의 모형 (1)의 추정 결과에서 기준선 해저드를 살펴보면, 24~29세 연령에서

보다 30~35세의 결혼 해저드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재학 중이거나 군대에 있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결혼 해저드가 낮다. 학력수준, 코호트, 종교, 유년기 성장지의 효과는 여성과 비슷했다. 부의 높은 교육수준도 결혼 해저드를 감소시켰는데, 여성과 달리 부의 교육 수준이 중졸 이하 학력에 비해 고졸 학력인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현재 취업상태와 정규직 근무는 남성의 초혼 형성 해저드를 증가시킴을 보여준다. 남성은 여성과 달리 취업상태에 있을수록 결혼을 빨리할 가능성이 높았다.

모형 (2)에서는 결혼 이전 3년 동안 장기무직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정규직 근속 기간이 2년 이상 되는지 여부가 결혼 해저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장기무직인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결혼 해저드가 낮다. 정규직 근속 여부는 결혼 해저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형 (3)은 노동시장통합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보여주고 있다. 현재 취업여부, 현재 정규직, 정규직 근속 여부는 24~29세를 기준으로 다른 집단과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24~29세에 비해 18~23세 집단은 장기무직일 경우 결혼 해저드가 더 낮았고, 30세~35세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결혼 해저드가 더 높았다. 노동시장통합과 연령의 교호작용 변수를 넣었을 때도 현재 취업, 현재 정규직 더미, 장기무직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모형 (4)는 연령과 코호트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토했다. 36~41세와 코호트 상호작용 변수는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모형 추정에서 탈락되었다. 여성과 달리 연령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은 출생 코호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모형 (5)에서는 여성과 마찬가지로 취업의 효과는 코호트마다 달랐다. 최근 코호트일수록 현재 정규직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결혼 해저드를 높였다. 장기무직과 정규직 근속 여부는 남성의 결혼 해저드에 코호트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주된 생계부양자인 남성에게 일자리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결혼 이행에 결정적인 전제 조건임은 과거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음을 시사한다.

모형 (6)은 기준선 해저드, 노동시장통합, 그리고 출생 코호트의 상호작용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노동시장통합과 코호트의 상호작용이 결혼 이행에 미친 효과가 연령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규직의 긍정적 효과가 최근 코호트에서 더 크게 나타났지만 24~29세 남성은 다른 연령층의

&lt;표 3&gt; 이산형 생존모형 분석 결과 I: 남성-노동시장이력과 결혼

	(1)	(2)	(3)	(4)	(5)	(6)
연령더미1 (18-23세)	-2.176*** (0.077)	-2.150*** (0.0781)	-1.628*** (0.209)	-2.118*** (0.083)	-2.153*** (0.078)	-0.962*** (0.168)
연령더미3 (30-35세)	0.285*** (0.053)	0.237*** (0.0541)	0.143*** (0.206)	0.211*** (0.063)	0.227*** (0.054)	-0.332*** (0.274)
연령더미4 (36-41세)	-0.933*** (0.141)	-0.987*** (0.142)	-1.304* (0.724)	-1.035*** (0.149)	-0.987*** (0.141)	-1.587*** (0.546)
재학상태 더미	-0.288*** (0.043)	-0.270*** (0.0441)	-0.268*** (0.044)	-0.267*** (0.044)	-0.260*** (0.044)	-0.149*** (0.042)
대학이상 학력	-0.114*** (0.044)	-0.0902** (0.0446)	-0.080* (0.045)	-0.088*** (0.045)	-0.087** (0.044)	-0.417*** (0.045)
코호트(70년이후 출생)	-1.108*** (0.055)	-1.112*** (0.0553)	-1.111*** (0.055)	-1.137*** (0.062)	-2.071*** (0.191)	-0.893*** (0.197)
종교	0.194*** (0.041)	0.196*** (0.0414)	0.194*** (0.041)	0.195*** (0.041)	0.192*** (0.041)	0.105*** (0.039)
광역시 성장	-0.246*** (0.044)	-0.246*** (0.0441)	-0.246*** (0.044)	-0.245*** (0.044)	-0.246*** (0.044)	-0.317*** (0.041)
부 고졸	-0.094* (0.056)	-0.0879 (0.0569)	-0.087 (0.057)	-0.084 (0.057)	-0.078 (0.057)	-0.167*** (0.051)
부 대졸	0.006 (0.073)	0.0196 (0.0730)	0.014 (0.073)	0.021 (0.073)	0.042 (0.073)	-0.155** (0.069)
현재 취업	0.846*** (0.059)	0.703*** (0.0705)	0.675*** (0.081)	0.702*** (0.070)	0.574*** (0.081)	0.641*** (0.114)
현재 정규직 더미	0.252*** (0.045)	0.277*** (0.0610)	0.296*** (0.075)	0.277*** (0.061)	0.174** (0.078)	-0.065 (0.121)
장기무직 더미		-0.254*** (0.0622)	-0.252*** (0.070)	-0.255*** (0.062)	-0.260*** (0.073)	-0.407*** (0.111)
정규직 근속 더미		-0.0415 (0.0683)	0.0322 (0.086)	-0.045 (0.068)	0.028 (0.085)	0.251** (0.111)
연령1*현재 취업			0.007 (0.195)			0.176 (0.164)
연령3*현재 취업			0.124 (0.210)			-0.210 (0.309)
연령4*현재 취업			0.317 (0.689)			-0.569 (0.698)
연령1*현재 정규직			-0.157 (0.311)			-0.786*** (0.217)
연령3*현재 정규직			-0.064 (0.152)			0.521 (0.379)
연령4*현재 정규직			-0.327 (0.409)			0.511 (0.663)
연령1*장기무직			-0.688*** (0.191)			-0.553*** (0.168)

(다음 페이지에 계속)

(표 3 계속)

	(1)	(2)	(3)	(4)	(5)	(6)
연령3*장기무직			0.326*			-0.228 (0.296)
연령4*장기무직			0.856 (0.533)			0.743 (0.573)
연령1*정규직 근속			-0.411 (0.449)			0.411* (0.213)
연령3*정규직 근속			-0.113 (0.154)			-0.600 (0.370)
연령4*정규직 근속			0.068 (0.446)			-0.405 (0.558)
연령1*코호트				-0.230 (0.200)		-0.590* (0.339)
연령3*코호트				0.108 (0.114)		0.810 (0.584)
현재취업*코호트					0.992*** (0.182)	0.266 (0.215)
정규직*코호트					0.301** (0.127)	0.037 (0.207)
장기무직*코호트					-0.002 (0.133)	-0.150 (0.204)
정규직 근속*코호트					-0.183 (0.142)	-0.214 (0.189)
연령1*현재 취업*코호트						0.153 (0.349)
연령3*현재 취업*코호트						-0.685 (0.665)
연령1*정규직*코호트						1.075*** (0.381)
연령3*정규직*코호트						0.053 (0.650)
연령1*장기무직*코호트						-0.258 (0.344)
연령3*장기무직*코호트						-0.027 (0.664)
연령1*근속*코호트						-0.418 (0.378)
연령3*근속*코호트						0.385 (0.585)
상수	-2.330*** (0.063)	-2.123*** (0.083)	-2.133*** (0.091)	-2.119*** (0.083)	-2.000*** (0.093)	-0.420*** (0.111)
관측치	49,190 4,470명	49,190 4,470명	49,190 4,470명	49,190 4,470명	49,190 4,470명	49,190 4,470명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남성에 비해 그 효과가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즉 여성과 마찬가지로 이 연령대의 남성이 현재 정규직 일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른 연령대의 남성이 정규직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 때보다 결혼을 서두르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모형에서는 여성에 대한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정규직 자체의 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했다. 정규직 일자리 여부의 효과가 지배적이기 보다는 연령과 출생 코호트에 따라 현재 정규직 여부가 결혼 이행에 차별적인 효과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남녀의 노동시장통합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생존 분석을 수행했다. 남녀의 노동시장참여 상태와 이력 가운데 결혼 시점과 결혼 3년 전의 일자리 유무와 고용형태를 가지고 일자리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관한 변수를 구축하고, 노동시장통합이 초혼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취업상태는 남성의 결혼 이행 해저드는 높이는 반면 여성의 결혼 이행 해저드는 낮추었다. 특정 시점에서 결혼 상태는 역으로 현재 취업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연관 관계만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여성의 경우 초혼과 현재 취업상태로 있음이 부(-)의 관계라는 것은 여전히 여성에게는 결혼과 노동시장참여가 일정 정도 대체 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정규직 근무는 남성의 결혼 이행 해저드를 증가시켰으나, 여성에게서는 정규직 근무의 효과가 모형 모두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안정적인 일자리는 여성에게 결혼으로 이행하는 전제 조건이 아님을 시사하거나, 앞서 지적한 대로 취업과 결혼의 단순 상관 관계만을 포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결혼 시점 훨씬 이전에 노동시장에 통합되어 있는 정도가 결혼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도 개인들이 결혼을 결정할 때 결혼과 동일한 시점이나 직전의 일정 시기의 취업 상태와 지위 보다는 일정기간(본 연구에서는 3년) 동안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고려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혼 시기와 근접한 현재 시점보다는 이전의 노동시장 통합 정도와 결혼 이행이 보다 인과 관계를 함축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무직, 즉

교육이나 군대 기간을 제외하고 결혼 전 3년 동안 2년 이상 무직 상태에 있을 때 남녀 모두 결혼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정규직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결혼 해저드가 높아졌다. 정규직 근속기간이 긴 남성에게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통적인 성역할과의 일치 여부가 결혼으로 이행하는 데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결과가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여성에게서도 장기무직 상태에 있을수록 결혼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았고 정규직에 오래 있을수록 결혼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여성에게 정규직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이라는 것이 결혼가능성에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정규직 근속은 결혼 가능성을 낮출 것이다. 즉 정규직이라는 일자리가 요구하는 장시간 근로와 경쟁적인 커리어 문화로 인해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친밀성의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또는 정규직, 즉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여성일수록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결혼으로 인해 희생하게 될 수도 있는 기회비용이 높기 때문에 결혼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은 여성에게도 결혼으로 이르는 경제적 자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남성에게는 결혼 시점에서의 취업 상태와 정규직 여부가 얼마나 오랫동안 정규직에서 근무했느냐보다 더 중요했다. 지속적인 노동시장에의 참여가 사회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 취업 상태에 있을수록 그리고 정규직에 있을수록 남성들의 결혼 가능성은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코호트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어 최근의 사회경제적 불확실성과 노동시장 불안정화가 초혼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했다. 코호트별로 노동시장참여 상태와 이력의 효과에 차이가 있었는데, 현재 정규직에 있는 여성은 1973년 이후 출생자가 이전 출생자에 비해 초혼 해저드가 높았다. 역시 역의 인과관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해서 해석해야 하겠지만, 정규직 상태 여성일수록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결혼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사실은 정규직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참여와 결혼이라는 사건이 대체적인 관계일 가능성이 과거보다 낮아졌음을 시사한다. 정규직 근속은 결혼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코호트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결혼 전 3년 동안 정규직에 2년 이상 근무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과거보다 결혼에 이를 가능성이 낮아졌다. 또한 30대 이후 나이가 들어서 정규직

일자리에 오래 근무했을수록 빨리 결혼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남성에게서도 정규직 근속의 코호트별 효과는 여성과 같이 부정적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과거나 지금이나 유리천장은 존재하지만 과거보다 상급 전문직과 관리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열려 있다고 했을 때, 과거보다 현재 코호트는 그러한 기회를 잡기 위해 결혼을 더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단 안정적인 정규직 상태가 된 여성은 나이가 들어서도 서둘러 성공적으로 결혼 이행에 성공할 수 있다. 장기무직의 경우도 나이가 들어서 장기무직 상태에 오래 있을 경우 결혼 해저드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혼을 단념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남성의 경우, 최근 코호트일수록 현재 취업 상태와 정규직 여부가 결혼 해저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더 컸다. 현재 취업상태와 결혼 간의 역의 인과관계가 여성에게서보다 약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과거보다 노동시장의 통합 정도가 남성의 결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소득별이자로서의 남성의 역할이 결혼의 전제 조건이 되고 있는 현실은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남녀의 결혼 이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중요한 기여와 시사점을 갖고 있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악화와 실업의 만연이 만혼과 결혼 기피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추측을 결혼이행 결정 요인의 코호트별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임금률의 하락이나 상승, 정규직이라는 일자리 안정성이 결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으나, 이러한 조건들이 과거에 비해 현재 어떻게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었다. 둘째, 현재 취업 상태나 종사상 지위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통합 정도와 결혼 이행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방법론상으로 그리고 이론상으로 노동시장 참여라는 경제적 조건이 어떻게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더욱 개선된 시각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초래하는 만혼과 결혼 회피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세비용보조, 자녀양육비 경감, 보육시설 확충 등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결혼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인 고용안정성을 높이면서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고용안정성과 지속성은 실질적으로 결혼을 통한 가족 생활 영위를 위한 경제적 자원을 확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으로 결혼에 대한 준비상태로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 〈참고문헌〉

- 김경화 (2004)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일과 결혼-대졸 미혼여성을 중심으로-” 《가족과문화》 16(3): 175-199.
- 박가열·천영민 (2011) “대졸자 고용의 질이 혼인에 미치는 영향” 《고용과 직업 연구》 5(1): 27-49.
- 박경숙·김영혜·김현숙 (2005),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 원인: 계층혼, 성역할분리 규범, 경제조정의 우발적 결합” 《한국인구학》 28(2): 33-62.
-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 안태현 (2010) “남성의 고용상황과 결혼형성” 《노동정책연구》 10(3): 35-64.
- 우해봉 (2009) “교육이 초혼 형성에 미치는 영향: 결혼 연기 혹은 독신?” 《한국인구학》 32(1): 25-50.
- 은기수 (1995) “결혼으로 이행에 있어서 연령규범과 순서규범” 《한국인구학》 18(1), 89-117.
- \_\_\_\_\_ (1999) “생애과정이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 생애사건 연쇄분석” 《한국인구학》 22(2): 47-71.
- 이상호·이상현 (2010) “저출산-인구고령화의 원인에 관한 연구: 결혼결정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금융경제연구》 working paper 제 445호.
- 조병구·조운영·김정호 (2007)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및 지원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02.
- 통계청 (2011)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 [인구부문] 보도자료.
- 유홍준·현성민 (2010) “경제적 자원이 미혼 남녀의 결혼연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3(1): 75-101.
- Alwin, D. & R. McCammon (2003) “Generations, Cohorts, and Social Change” J. Mortimer and M. Shanahan (Eds.) *Handbook of the Life Course* Kluwer Academic/ Plenum Publishers.
- Oppenheimer, V.; Kalmijn, M. and Lim, N.(1997) “Men’s Career Development and Marriage Timing During a Period of Rising Inequality” *Demography* 34(3) 311-330.
- Wilson, W. J. (1987) *Truly Disadvantaged: The Inner City, the Underclass, and Public Poli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bor Market Integration and Transition to Marriage

*Jayoung Yoon*

This study purports to analyze how individuals' labor market integration affect their transition to marriage. In doing so, I construct variables for job stability and continuity to represent labor market integration using labor force status and years of participation at the time of marriage and during the three years up to the point of marriage. In particular, I focus on differential effects of these labor market integration on the transition to marriage by cohorts: one for those who are likely to enter the labor market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and the other for those who are before the 1997 financial crisis. I used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and analyzed individuals aged above 18 in 2008.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being currently employed and regular employment increases hazards of the first marriage for men but decreases them for women. long-term no-jobs decreases hazards of marriage for both women and men. long-term regular employment increases hazards of marriage for women but not for men at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These effects vary by cohorts implying that recent economic and labor market instability deteriorated economic conditions for the youth making transitions to marriage.

**Key Words:** Labor Market Integration, Transition to Marriage,  
Youth Unemployment, Job Stability